



## 필동인쇄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표적조사 중단하고 공장등록증 발급하라!”

필동인쇄인들의 자발적 모임인 필동경제인협의회회장 박장선, 이하 필경회가 주축이 된 필동경제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장선, 이하 비대위)가 지난 2월 7일 중구청 앞에서 500여명의 인쇄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동 경제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icho@print.or.kr

결의대회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김직승 인쇄연합회 전회장, 정채문 한국레이벌협회 회장, 고수곤 대한인쇄연구소 전임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동 재정비 계획, 이와 맞물린 빈번한 지역 민원에 편승한 중구청의 표적조사 의혹에 따라 개최됐다.

필동은 최근 10여 년간 중구 인현동, 을지로 일대로부터 인쇄사들의 이전이 이뤄진 곳으로 중구청이 한옥마을 조성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필동의 인쇄인들은 중구청의 한옥마을 조성 계획과 민원인들과의 모종의 유착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또한 민원을 근거로 실시한 필동 지역 91곳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위법 사례가 지목됐다는 점, 여타 중구지역의 업종 및 업소에는 같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표적조사라는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1. 대회를 선포하는 박장선 비대위원장  
 2. 결의대회를 격려하고 있는 남원호 서울조합이사장  
 3. 서한문을 공개하는 이상권 (주)상진문화 대표  
 4. 필동 인쇄인 대표로 나선 류명식 해인기획 대표  
 5. 결의문을 낭독하는 김기중 미콤아트프린팅 대표와 김성미 대원아이엔시 대표

### 중구 특화산업인 인쇄업 확대 안 돼

결의대회에서 박장선 비대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필동경제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4600명의 주민과 4만8천명의 종사자와 함께 필동경제를 지탱하는 중구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중구청은 악성 민원을 일삼는 몇 명의 민원인들과 야합하고 필동을 재정비하여 한옥주거지역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는 필동의 모든 사업장을 몰아내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인쇄산업은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외세의 침략 등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꽃피우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아 왔음에도 중구청은 인쇄산업을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저급한 사업으로 인식, 필동 경제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원호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필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구 일대에 인쇄골목이 형성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며,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다”면서 “필동지역 인쇄인뿐만 아니라 서울인쇄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중구 인쇄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상권 (주)상진문화 대표는 “표적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시정지시) 즉각 철회하라! 무리한 과잉 표적단속 즉각 중단하라! 필동관내 전 지역 위법건축물 전수조사 후 행정처분하라! 인쇄업 공장등록증 발급하라!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하라!” 등을 주장한 서한문을 공개한 후 중구청에 전달했다.

필동 인쇄인 대표로 나선 류명식 해인기획 대표는 “서울시의 특화산업지구 계획에 따르면 중구(디자인), 동대문(한방), 강남(디자인), 중구(인쇄), 중랑(패션), 마포(웨딩) 등 중구는 디자인과 인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화산업지구란 서울시가 전통 중소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힌 후 “중구청은 전통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우리 인쇄산업을 몰아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기중 미콤아트프린팅 대표와 김성미 대원아이엔시 대표는 “중구청은 몇 명의 악성 민원인 대변자가 아니라 4600명의 주민과 4만8000명 경제인들의 대변자로서 거듭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표적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구청장은 잘못된 행정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구청장은 진정한 대회를 통해 필동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담긴 결의문을 낭독했다.

### 후속 조치 보류·4개 주체 TF팀 통해 협의

이처럼 필동인쇄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행행사가 이어지자 중구청은 지난 2월 14일 비대위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진행한 표적단속에 대한 후속조치는 보류하고 필경회, 중구청, 필동통장협의회, 중부경찰서 등 4개 주체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조사 및 필동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필경회는 앞으로 TF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점은 필경회 차원의 자정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필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